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22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 답

1	⑤	2	①	3	②	4	③	5	②
6	①	7	③	8	②	9	①	10	②
11	⑤	12	⑤	13	④	14	④	15	④
16	①	17	①	18	③	19	③	20	④
21	③	22	④	23	②	24	②	25	④
26	③	27	①	28	④	29	⑤	30	⑤
31	⑤	32	②	33	①	34	③		

해 설

[1～3] (독서 이론) 배경지식의 활용

이 글은 글의 의미 구성에 활용되는 배경지식의 개념과 기능, 활용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독서를 독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글의 의미 구성에 활용되는 배경지식은 내용 배경지식과 형식 배경지식으로 구분되는데, 글의 의미 구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독자는 글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과정에서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하면 글의 내용을 더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추리할 수 있으며, 읽은 후에는 오랫동안 글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가들은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글과 관련해 연상한 내용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들은 연구 초기에는 독자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배경지식을 쌓는 방법을 연구했지만, 실제 독서 상황에서 배경지식이 오히려 독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배경지식의 양 이외에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1. [출제의도]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을 이해한다.

2문단에 의하면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독자는 글을 읽기 전에 배경지식을 활용해 읽을 글에 대해 예측하는데, 그렇게 하면 새로운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독서를 할 때 배경지식을 잘못 활용하면 독서 목적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진술은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의하면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독서를 독자가 글과 상호 작용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로 본다. ② 2문단에 의하면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글의 의미 구성을 효과적으로 하는 독자는 글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배경지식을 활용한다고 본다. ③ 4문단에 의하면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마다 구성되는 의미가 다르다고 본다. ④ 2문단에 의하면 독자 중심의 독서 교육 이론에서는 독서 과정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는 다른 글을 읽을 때 배경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 [출제의도] 배경지식의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학생은 책 본문에 있는 '이전 양식에 비해 화려하며'라는 말을 통해 고딕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보다 화려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글의 맥락을 통해 로마네스크 양식의 유행 시기가 아니라 고딕 양식의 외형적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그리고 배경지식을 활용해 독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조리 있게 재구성하는 것은 읽는 중이 아니라 읽은 후에 하는 활동이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글을 읽으며 샤르트르 대성당이 고딕 양식이라는 정보를 확인하고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샤르트르 대성당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잘못된 배경지식을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다. ③ 학생은 책을 읽기 전에 서양 건축과 관련하여 떠올린 '로마네스크'와 '고딕'을 서양 건축 양식의 하위 개념에 배치했는데, 이는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글과 관련하여 연상한 내용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적용한 것이다. ④ 학생은 책을 읽으며 색유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미앵 대성당의 특징에 대해 추측했는데, 이는 내용 배경지식을 활용해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한 것이다. ⑤ 학생은 책 제목에 있는 '건축사'라는 말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이 시간순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글의 구성과 표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인 형식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3. [출제의도] 독자의 독서 능력에 대해 이해한다.

<보기>에 따르면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을 글과 관련 없는 배경지식까지 활성화하여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이로 인해 독서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심화하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배경지식의 양 이외에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배경지식을 선별, 활성화하여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은 배경지식의 양 이외에 독서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의 양을 점검하는 것은 ㉠과 관련이 없다. ③ <보기>에서 독서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불필요한 배경지식까지 활성화하여 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지, 독서에 적합한 공간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글에 집중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④, ⑤ <보기>에서 독자가 독서 목적과 관련 없는 내용을 심화하게 된 것은 글과 관련 없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했기 때문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거나 독서 방식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이 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4～9] (사회 주제 통합)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나) 오정일 외, '법경제학 입문'

(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법경제학에서는 효율을 잣대로 사용하여 어떤 법 제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여기서 효율이란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가 증가하느냐의 여부인데, 후생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을 의미한다. 효율은 사후적 효율과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절도는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든 사전적 효율 측면에서든 후생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도산법은 사후적 효율의 관점에서 법 제도가 형성된 대표적 사례이고, 지식 재산권 관련 법은 사전적 효율의 관점에 기초하여 성립된 경우이다.

(나) 오정일 외, '법경제학 입문'

통계학에서 제1종 오류란 올바른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제2종 오류란 잘못된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가해자가 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유인책에 영향을 끼친다.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이 각각 20%일 때에서 각각 40%일 때로 증가하게 되면 가해자로서는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이익이다. 또한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비용이 동일할 경우 제1종 오류의 확률을 줄이는 것이 법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유인책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가)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절도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인책이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이 허용될 경우나 지식 재산권 관련 법에서 표절이 허용될 경우 경제학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인책이 작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나)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해자에게 어떠한 유인책이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모두 경제학적 측면에서 법이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법 제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실태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가)는 법 제도가 바람직하게 제정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나)는 법원의 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가), (나) 모두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가), (나) 모두 바람직한 법 제도가 실제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가)의 2문단을 보면, 물건을 훔친 을의 후생은 80원이고 갑의 후생은 100원이다. 물건은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되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20원의 후생 감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사후적 효율 측면에서 법이 절도를 금지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물건을 훔친 을이 갑보다 높은 후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은 법이 절도를 금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서 도산법에서 개별적 채권 추심이 인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이 손상되거나 헐값에 매각되는 등 사회 전체 후생의 감소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에서 법이 표절을 금지하는 이유는 창작 유인책이 저하되어 애초에 창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2문단에서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 확률이 20%라면 가해자는 1수준의 사고 방지 주의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과실 판단 오류 자체가 가해자의 사고 방지 주의 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 것은 아니다. ⑤ (나)의 1문단에서 법원이 심리하는 가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여 과실 없음을 판결하는 것은 제1종 오류임을 알 수 있다.

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100원의 손해를 A가 일부라도 부담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 100원 그 자체를 줄이거나 제거하지 못한다. 계약을 지키지 않아 100원의 손해가 발생한 이상 사회 전체의 후생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다. A가 B에게 손해 배상으로 50원을 지급하면 A는 50원의 손해를 입고, B는 50원의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손해 배상을 일부라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실은 여전히 100원이다.

[오답풀이] ② 계약법이 A가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정해지면 A는 100원의 손해를 입는다. 사전적 효율은 당사자의 사전적 유인책을 고려한 개념이므로 A에게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을 덜 파기하려는 유인책이 생길 수 있다. ③ A가 계약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발생한 이상 계약법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사회 전체의 후생은 여전히 100원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후생은 계약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④ 계약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쳐 만약 계약이 이행됐다면 100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 전체의 후생 감소를 계약법이 막을 수 있다. ⑤ 계약법이 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계약법은 A의 계약 미이행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0%라고 가정해 보자. 가해자가 0수준의 사고 방지 주의를 선택하면 100% 확률로 기대 사고 비용 60원을 부담하므로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0원이다. 1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총 기대 손실 비용은 30원이다. 기대 사고 비용 20원을 부담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주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수준의 주의를 선택하면 총 기대 손실 비용은 60원이다. 기대 사고 비용 10원을 부담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주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추론하면 법원의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확률이 모두 20% 이하라면 가해자에게는 주의 비용 60원을 부담하려는 유인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8.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에서 '위 계산 과정을' 따른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정 주의를 1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는 1수준이 들어가야 한다. 제시된 표를 바탕으로 계산 과정을 따르면 기대 사고 비용인 6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제1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고, 기대 사고 비용 20원에 곱해지는 확률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이다.

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이해한다.

㉠에 해당하는 '논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 또는 그런 토의.'이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데 합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단어는 '합심'이다.

[10～13] (인문) A. F Chalmers, '과학이란 무엇인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단칭 언명들을 일반화한 보편 언명이 과학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과학 이론이 지금까지 참임이 확인된 단칭 언명들을 통해 미래에도 참임이 보장될 수는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일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참인 단칭 언명들이 늘어날수록 보편 언명이 참이 될 확률이 커진다는 입장으로 물러섰으나 제기된 비판을 해결하지 못했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과학과 비과학의 구분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하고, 관찰에 의해 반증될 수 있는 언명만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참인 단칭 언명을 통해 어떤 보편 언명이 참임을 알 수 없지만, 참인 단칭 언명을 통해 어떤 보편 언명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판적 합리주의는 논리 실증주의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난점에 빠지지 않았으나 과학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0.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4문단을 통해 비판적 합리주의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점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해 제기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을 통해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반증 가능성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을 통해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이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과학 이론이 거듭된 반증을 거치며 더 나은 과학 이론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④ 4문단을 통해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기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의 관찰로부터 새로운 과학 이론이 비롯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을 통해 논리 실증주의에서는 객관적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으로 확실히 결정될 수 있는 언명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1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비판적 합리주의에 따르면 에딩턴의 사진 분석은 아인슈타인의 가설이 참된 진리에 도달했음을 알게 할 수는 없다. 반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에딩턴의 사진 분석을 통해 물질의 존재와 무관하게 공간이 항상 같은 상태라는 기존의 과학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비판적 합리주의에서는 과학이 참된 진리에 점차 가까워질 수는 있으나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② 비판적 합리주의에 따르면 기존 과학 이론은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관찰될 때 폐기된다. ③ 비판적 합리주의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가설은 반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을 때 잠정적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④ 비판적 합리주의에 따르면 에딩턴의 사진 분석에 의해 반증된 기존의 과학 이론은 반증 가능한 것이므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다.

12.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는 어떤 가설을 반증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가 관찰되지 않으면 이 가설은 잠정적 과학 이론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오답풀이] ① ⓐ는 단칭 언명에 대한 설명이다. 단칭 언명은 기존 이론과 무관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다. ② ⓑ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들은 단칭 언명을 통해 일반화한 보편 언명이 미래의 단칭 언명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③ ⓒ의 입장은 단칭 언명이 누적될수록 보편 언명이 참이 될 확률이 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한다고 본 일부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입장이다. ④ ⓓ는 단칭 언명을 통해 일반화한 보편 언명이 앞으로의 단칭 언명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문제이다.

13.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이용해 추론한다.

비판적 합리주의의 생각과 달리 실제 과학 현실에서 과학자들은 기존 과학 이론으로 풀이될 수 없는 반증 사례가 발견되어도 기존 과학 이론을 버리지 않고 보완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한다. 기존 이론을 폐기하지 않고 수정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14～17] (기술) Behrouz A. Forouzan,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킹'

우주를 탐사하는 우주선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를 상상해 보자. 전송되는 과정 중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에 오류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다. 우주선과의 통신이 자유로운 경우라면 데이터를 재전송하여 데이터 왜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재전송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왜곡된 데이터에서 오류를 검출하여 복구해야 할 것이다. 이때 데이터 간의 해밍 거리를 멀게 하면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여 복구할 수 있다. 해밍 거리는 길이가 같은 두 부호를 비교하였을 때 두 부호의 같은 자리에 있는 서로 다른 문자의 개수로, 데이터들이 서로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별을 관측할 때 서로 가까이 있는 두 별을 구별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진 두 별을 구별하는 것이 더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원리에 의해 해밍 거리가 1인 0과 1을 구별할 때와 달리, 해밍 거리가 3인 000과 111을 구별할 때는 한 자리의 오류를 검출하여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밍 거리를 멀게 하면 전송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1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2문단에서 00, 11과 같은 2비트의 데이터가 2진수로 표현된 수치를 가리킨다면 00과 11의 거리는 두 수의 차인 3이라고 하였다. 또 부호의 관점에서 00과 11의 해밍 거리는 2라고 하였다. 따라서 00과 11의 2진수 수치 차이와 해밍 거리는 다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데이터가 2진수로 표현된 수치를 가리킨다면 거리는 두 수치의 차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거리는 추상적인 성질이나 가치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척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거리는 두 개의 지점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⑤ 2문단에서 데이터가 표현하려는 정보에 따라 측정 방법이 다르다고 하였다.

1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A]에서는 최소 해밍 거리가 3이고 한 자리의 오류만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두 자리의 오류를 수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11을 수신한 경우 [A]에서 제시된 규칙에 따라 p와 q 모두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oxed{\text{p자리}}$와 $\boxed{\text{q자리}}$에는 각각 1이 표시된다. 그런데 한 자리의 오류만 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boxed{\text{p자리}}$와 $\boxed{\text{q자리}}$에 각각 1이 표시되는 경우 x p q 중 x가 틀렸다고 추론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전송 부호는 원시 부호에 확인 부호가 덧붙어 만들어진다. 고정된 원시 부호에 확인 부호가 많이 덧붙을수록 최소 해밍 거리는 멀어질 수 있지만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난다.

[오답풀이] ② 부호 간의 최소 해밍 거리가 1이면 오류가 있는지 알 수 없다. ④ 덧붙이는 부호가 많아지면 전송 부호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전송 부호들 간의 최대 해밍 거리는 멀어진다. ⑤ 전송 부호들 간의 최소 해밍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확인 부호가 줄어든다. 따라서 보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줄어들어 전송 효율은 높아질 수 있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의 '떨어진'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의 의미로 쓰였다.

[오답풀이] ② '해나 달이 서쪽으로 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다른 것보다 수준이 처지거나 못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갈라지거나 떼어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이익이 남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3] (갈래 복합) (가) 최현, 「명월음」, (나)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다) 윤오영, 「염소」

(가) 최현, 「명월음」

이 작품은 임진왜란 때 최현이 지은 연군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전란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상술하기보다 전란으로 인한 비극적 심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구름에 가려진 달에 비유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등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뜬구름과 떼구름으로 인해 희미한 한줄기 달빛마저 아득해진 상황에서도 단심을 지켜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는 염원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서 뜬구름과 떼구름은 명월을 가로막는 것으로, 전란의 현실과 관련된 부정적 세력을 의미한다. 작가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우국과 연주의 심정을 서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이 작품은 박인로의 연시조이다. 박인로는 17세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인이면서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에는 전란의 경험과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작품도 있고 전란 이후의 혼란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도 있다. 이 작품은 전란 이후에 작가가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창작한 것으로, 바위의 곧고 높은 모습 등을 예찬하면서 바위만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표현 기법을 동원하여 바람직한 가치의 회복을 희구하는 작가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윤오영, 「염소」

이 작품은 윤오영의 작품 가운데 수작으로 꼽힌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어린 염소와 그 염소의 주인과 이를 관찰하는 작가 자신을 차례로 조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염소에 대한 회화적 묘사를 통해 염소에 대한 작가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염소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상상하고 염소를 팔러 다니는 주인에 대해 떠올린 작가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어린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자신과 연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가 자신의 운명, 염소를 팔러 다니는 주인의 운명, 염소의 운명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는 염소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존재의 운명론에 대한 철학적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작품의 문학적 예술성을 배가하고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리' 등에서, (나)의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등에서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의 '본색'은 달이 가진 본래의 성질, 즉 달의 밝고 환함, 광명을 가리킨다. (가)에서 화자는 '풍운'이 변화하더라도 달의 '본색'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심'을 지켜 밝은 달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다. (가)에서는 달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본색'을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에서는 운명과 본성에 따를 것을 강조하는 페이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글쓴이는 염소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주인의 뒤를 총총 따르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는 것처럼, 운명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달의 빛이 희미하고 아득하여 '금작경'을 닦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었다. 그런데 화자는 이 '금작경'이 '명월'과 달리,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금작경'이 '제 몸만'을 비추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21.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대해 파악한다.

(나)의 <제3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변함없이 옛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는 바위를 벗 삼아 앉아 있어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귈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바위를 벗으로 삼고 앉아 있는 화자의 행위가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귈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화자의 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에서는 (가)와 (나)가 전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되었으며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가)에서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은 구름이 달을 가리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에서 '구름 깊은 골짜기'는 높이 곧게 서 있는 바위들이 자리한 곳으로,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는 것은 전란으로 인한 부정적 현실,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구름'은 전란의 현실과 관련된 부정적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은 바위의 곧고도 변함없는 모습, 높고도 곧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바위를 인격을 지닌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구성을 고려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이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은 염소가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보기>에서 설명한 글의 구성을 고려하였을 때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한 부분은 ㉮가 아니라 ㉰이다.

[24～26] (현대시) (가)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나)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가) 이용악,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 살아야만 했던 유이민의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바깥 세계에 대한 열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으나 각박한 타향에서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화자는 고향이 자신을 부르는 힘에 이끌려 다시 귀향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돌아온 고향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거리가 있음을 깨닫고, 화자는 다시 고향을 떠나려 한다. 이 작품은 그 어디에도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한 유이민의 비극적인 삶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신경림,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이 작품은 자신이 태어나 주로 살던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성장하면서 바깥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고향에서 점점 더 먼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지만 화자는 어느 순간 결국 자신을 낳아 주고 길러 준 근원의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된다. 그곳은 모성으로 대표되는 세계로 자신의 구심점이 되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24.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B]에서 '밤마다 밤새도록 꺼지고 싶지 않었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등잔불'에 투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도망하고 싶던 너의 아들', '가슴 한구석이 늘 차그웠길래' 등을 통해 볼 때, 화자가 시적 공간에 대해 친밀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25. [출제의도] 시구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나)에서 어린 화자가 '램프불 밑'에서 본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화자가 조금 자라서 '칸델라불 밑'에서 본 것은 '험상궂은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이었다. 화자가 소년이 되어 '전등불 밑'에서 본 것은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겟방의 휘황한 불빛'이었다. 화자는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세상이 넓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칸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의 변화는, 화자가 경험한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마음의 불꽃'은 '도망하고 싶던'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거느렸던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것이 화자가 고향을 떠나면서 느꼈던 아픔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나)의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화자가 어린 시절 집에서 놀면서 보았던 금점꾼들과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돋움새겼던 것으로, 고향을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화자가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서 슬픔을 느끼게 된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되돌아온 고향이 화자가 생각했던 고향과 거리가 있는 세계였음을 나타낸다. ② (나)에서 화자가 '내 망막'에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어린 시절 보았던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리워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신의 근원인 모성적 세계를 그리워함을 보여 준다. ④ (가)의 '내 곳곳을 헤매어 살길 어두울 때'는 화자가 고향을 떠나 느꼈던 힘겨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이곳 저곳 떠도는 즐거움'은 화자가 고향을 떠나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느꼈던 재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⑤ (가)의 '너의 부름이 귀에 담기어짐'은 고향을 떠나 지내던 화자가 고향의 부름에 이끌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의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는 고향을 떠나 유랑하던 화자가 결국 자신의 구심점인 고향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27～30] (고전소설) 작자 미상, 「장풍운전」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영웅 소설이다. 주인공 장풍운은 명문 가문에 태어나 어려서 전쟁 때문에 부모와 헤어지게 된다. 이후 여러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게 되고, 백년가약을 맺기도 한다. 그리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장원 급제를 한 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다. 입신양명하여 부귀공명을 이루게 된 장풍운은 노승의 도움을 받아 헤어졌던 부모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 가문을 재건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풍운이 위국공 위왕으로, 이경패가 정렬왕비에 오르며, 부모와 자식도 영달한다. 주인공의 영달이 가족을 영달하게 하고 가족의 영달이 가문의 명예와 번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부남 태수는 자신의 내력을 원수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통해 그가 가달을 평정하고 돌아왔을 때 황제로부터 부남 태수를 제수받았으며 아내와 아들의 종적을 알지 못한 채로 부남에 홀로 부임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양 씨는 낭자와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은 후에 낭자가 자신의 며느리임을 알게 되었다. ③ 원수는 도적에게 잡혀갔다가 도적에 의해 버려졌다. ④ 원수는 왕 상서의 명으로 황성에 갔다가 과거 시험을 보았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황성에 간 것이 아니다. ⑤ 부남 태수는 원수의 기질과 풍채를 보고 선풍도골이어서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하다고 느꼈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B]에서 원수가 낭자의 부친, 왕 상서 등의 조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D]에서는 원수의 부친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워 부남 태수에 부임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를 통해 모친이 원수의 옷을 낭군의 신표로 간직하고 있는 낭자를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를 통해 원수가 낭자와 연을 맺은 전후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원수의 부친이 절강의 장 도사에게 원수의 관상을 보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를 통해 부친이 원수가 행여 단명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절강의 도사에게 관상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③ [B]에서 원수가 한림학사를 지냈다고 제시하고 있다. [C]에서 한림학사를 제수받은 이후 대사마 대원수가 되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보기>와 관련지으면 큰 공을 세운 것이 가문의 번영을 이루는 토대가 됨을 알 수 있다. ⑤ [D]에서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헤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에서 전쟁에 나가 큰 공을 세우고 돌아가는 길에 가족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이 가족을 만나는 여정의 상황적 배경으로 기능한 것이다. 이는 전쟁이 원수가 가족과 재회하게 되는 노정에 오르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29.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부남 태수는 장풍운과 이별하더라도 서로 잊지 않기 위해 장도를 장풍운에게 채우고 생년월일시를 써 비단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이에 따라 ㉠과 ㉡이 증표가 되어 가족들이 서로를 알아보고 있다.

30.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부남 태수가 원수에게 장도를 구경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원수는 장도를 부남 태수에게 끌러 주었다. 장도를 보고 부남 태수는 자신이 아들에게 준 칼이라고 생각하며 슬퍼하였다. 그런데 이때 원수가 자신의 아들로 확신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아들로 확신했다면 부남 태수가 칼을 보며 슬퍼하다가 자신의 내력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남 태수는 원수가 풍운임을 밝히자 유서를 받아 자신의 친필임을 확인하고 있다. 증표를 통해 자신의 아들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31～34] (현대소설) 최명익, 「폐어인」

이 소설은 일제의 강압이 심화되던 193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현일과 도영, 병수 세 인물을 통해 '불안이라는 유행병'이 만연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 지식인들의 혼란스러운 내면 의식을 그리고 있다. 물속과 뭍 양쪽에서 호흡이 가능한 물고기인 폐어처럼 현일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절망과 비관, 패기와 낙관이라는 두 방향의 의식과 태도를 지니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현일은 폐병으로 죽음에 가까워져 감에 따라 절망과 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패기와 낙관을 상실해 간다. 현일은 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죽어 가는 폐어'에 빗대어 깊은 무력감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 병수와 같은 신세대들이 구세대와는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기도 한다.

31.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현일은 병수의 말에 불쾌함을 느꼈지만 그 이유가 병수의 말이 근거 없는 추측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는 현일이 병수의 말에 대해 '전연 억측만도 아닌 바에야'라고 생각한 데에서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③ 현일은 제자인 병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젊은이의 청신한 기분'을 맛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실제 대화가 기대와는 다르게 '삐여지는' 것에 우울함을 느꼈다.

3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는 현일의 내면 의식을 제시한 장면으로, '나 역시 이 세상과는 벌써 인연이 멀어진 사람이로구나.', '그러나 지금 내게는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 죽어 가는 폐어에게 물도 공기도 무슨 소용이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일의 내적 독백을 직접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이해한다.

상징적 소재로서 폐어와 관련해 형성되는 의미의 대립항은 '물속'과 '뭍'이다. '물속'은 현일의 삶의 조건으로서 절망과 비관을 느끼게 하는 현실을, '뭍'은 현일이 지향하는 패기와 낙관의 삶을 의미한다. 그가 절망과 비관에서 벗어나 패기와 낙관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철학의 지식', '이론'이다. '두 가지 호흡의 기능'을 모두 잃고 죽어 가는 폐어는 패기를 잃고 절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일의 비극적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현일은 '무엇이 남았으랴. 절망인들 남았으랴.'하고 탄식한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현일이 병수의 말에 '아픈 타격'을 느낀 이유는, 병수의 말이 현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일은 교사 시절에 그랬듯이 병수와의 대화에서도 의지와 패기를 강조한다. 이에 대해 병수는 그것이 의지와 패기라는 말에 걸맞은 건강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일이 지닌 내면의 절망감과 결핍에서 비롯한 것이 아닐까 하고 냉소적으로 반문한다. 병수의 반문하는 말을 들은 현일은 자신이 지녀 왔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지만,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일을 계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일이 사회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일을 계획하는 데 병수의 말이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화법과 작문]

35	③	36	①	37	⑤	38	④	39	②
40	⑤	41	③	42	①	43	④	44	⑤
45	②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강연자는 청중에게 '은일'과 '망중한'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제시하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여 '은일'과 '망중한'의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1문단에서 강연자는 청중에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신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지만 청중과 함께 공유한 경험을 환기하고 있지 않다. ⑤ 1문단에서 강연자는 정신적 여유로움을 담아낸 그림들을 소개한다는 강연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강연에서 다룰 내용들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36.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 강연자는 청중에게 자연 속에서 차를 마시는 상상을 하라고 한 후에 <자료 1>을 보여 주며 청중들이 상상한 장면과 <자료 1>의 그림이 비슷한지 묻고 있다. 하지만 <자료 1>을 보여 주며 그림 속 소재들에 대한 청중들의 감상 의견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강연자는 <자료 1>의 소재인 거문고와 차를 각각 지시하며 이러한 소재들이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강연자는 <자료 2>를 보여 주며 그림 속 인물과 소재에 주목해 다동이 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거문고가 있다는 점이 <자료 1>과 유사한 점임을 청중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강연자는 <자료 2>의 소재인 기암괴석과 파초, 그리고 야자수를 각각 지시하며 그림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문인들의 취향을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강연자는 <자료 1>과 <자료 2>를 함께 보여 주며 <자료 1>은 자연의 공간인 산속을 배경으로 삼고 있고, <자료 2>는 인위적 공간인 정원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1은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이경윤의 「월하탄금도」의 소재인 거문고가 도연명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또한 거문고와 관련된 도연명의 고사에 대해 강연에서 다루기를 기대했는데 다루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학생 3은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그림 속 공간에 대해 강연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 학생들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강연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이경윤의 「월하탄금도」의 소재인 거문고가 도연명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② 학생 2는 강연을 통해 오랜만에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강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거문고와 관련된 도연명의 고사에 대해 강연에서 다루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다. 또한 학생 2는 이경윤의 「월하탄금도」와 김홍도의 「전다한화」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강연자가 강연에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대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에서 학생 3은 상대가 '행복한 대화 벤치' 사례에 대한 글을 봤는데 이 사례를 신문 기사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하자,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해 보겠다고 답하고 있다. 상대에게 프로그램 소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학생 3은 상대가 학생회 임원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자,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려는 것 같다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추측하며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외로움을 더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에서 학생 2는 상대가 또래 상담 동아리의 '행복한 대화 벤치' 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자, 이를 재진술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⑤ ㉤에서 학생 2는 상대가 학생이 이동하는 동선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를 덧붙이자고 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행사 개최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기사 앞부분에 외로움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는 게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39.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학생 1은 회의 첫 부분에서 '친해지길 바라' 행사를 학교 신문에 싣기로 하고 기사문 작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로 했다는 지난 회의의 결정 사항을 환기하며,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초고의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자고 회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③ 학생 1은 기사문 작성을 위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그 역할을 개인별로 배분하지는 않았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가)에서 언급된, 짧은 순간에 친근감을 표현하더라도 혼자라는 느낌이 덜 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에서 활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외로움이 미치는 해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외로움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지 (가)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학생회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② 행사에 참여하는 공연 동아리들의 프로그램과 관련해 (나)에서 추가 정보가 제시되었다. ③ (나)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행복한 대화 벤치'의 효과를 들어 또래 상담 동아리의 '행복한 대화 벤치' 프로그램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할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였다. ④ (가)에서 학생의 이동 동선에 따라 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자고 한 내용 구성 방법에 따라 (나)에서 각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41. [출제의도] 글쓰기의 내용을 점검한다.

[전문]에서 '친해지길 바라'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왜 진행되는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육하원칙을 모두 지켜 요약적으로 제시했다는 점검 결과 '예'는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A]를 고쳐 쓴 <보기>는 학생회장이 행사를 통해 바라는 점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내용은 (나)의 앞부분에서 행사를 통해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학생회장의 말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다. 그리고 <보기>에 '친해지길 바라' 행사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43. [출제의도] 내용 조직 방법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초고의 3문단에서 숲 가꾸기의 방법을 낙엽을 긁어내는 것, 낮은 위치의 나뭇가지를 쳐 내는 것, 생장이 나쁜 나무를 솎아 내어 큰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것으로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서 산불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 넓어지고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산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② 초고의 2문단에서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나누어 산불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념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산불의 발생 원인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초고의 2문단에서 수관화의 개념을 사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초고의 3문단에서 산불 확산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숲 가꾸기와 내화 수림대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비의 방식으로 산불 확산을 해결하는 여러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초고의 2문단에서는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바람과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II는 신문 기사로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과 토양을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여 준다. III-2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떡갈나무에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로,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떡갈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II와 III-2에서는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토양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문단에 산불을 확산시키는 요인에 바람과 지형 외에 토양과 수종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I은 전문가 인터뷰로 수관화가 발생하면 불기운이 강하고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산불이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수관화가 발생하면 산불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2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II는 신문 기사로 사례를 통해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를 1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III-2는 침엽수인 소나무와 활엽수인 떡갈나무에 불이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자료로 소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떡갈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활용해 내화 수림대 조성에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사용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다. ④ I은 전문가 인터뷰로 수관화가 침엽수림에서 많이 일어나므로 산림 정책을 펼칠 때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된 혼효림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산림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III-1은 우리나라의 나무 종류별 산림 면적을 보여 주는 자료로 침엽수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I과 III-1을 활용해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산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숲 가꾸기와 내화 수림대 조성은 산불 확산 방지 방법인데, 이를 '방패'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산불 확산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산불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①	38	⑤	39	⑤
40	④	41	②	42	①	43	③	44	④
45	③								

35.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15세기 국어의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15세기 국어의 '젊-+-노라'(전노라)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빛+나다'(빗나다)의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일어나고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36.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사례를 적용한다.

'겉멋만→[건먼만]', '꽃식물→[꼳씽물]', '낮잡는→[낟짬는]' 모두에서 음절 끝의 자음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37. [출제의도] 단어의 구성 방식을 파악한다.

㉠ '어느새'는 어근 '어느'와 어근 '새'로 구성되어 있다. '꺾쇠'는 어근 '꺾-'과 어근 '쇠'로 구성되어 있다. ㉡ '마음껏'은 어근 '마음'과 접미사 '-껏'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껏'은 명사인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부사로 바꾸어 준다. '지우개'는 어근 '지우-'와 접미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개'는 동사인 어근 뒤에 붙어서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준다.

[오답풀이] '헛수고'는 접두사 '헛-'과 어근 '수고'로 구성되어 있다. '톱질'은 어근 '톱'과 접미사 '-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접미사 '-질'은 어근의 뒤에 붙지만 품사를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38.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

㉠에서 안긴문장의 주어는 '아들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어머니는'이다. ㉡에서 안긴문장의 주어는 '파수꾼이'이고 안은문장의 주어는 '동물은'이다. ㉢에서 안긴문장의 주어와 안은문장의 주어는 모두 '감독이'이다.

39.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양상을 이해한다.

ⓑ에서 '파랗다'가 '파래'가 된 것은 불규칙 활용이지만, 어간의 'ㅎ'과 어미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어간 '입-'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아름답-'의 'ㅂ'이 달라졌다. ② ⓐ에서는 어간 '쑤-'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푸-'의 'ㅜ'가 없어졌다. ③ ⓐ에서는 어간 '걸-'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걷-'의 'ㄷ'이 달라졌다. ④ ⓐ에서는 어간 '씻-'의 형태가 유지되었지만, ⓑ에서는 어간 '잇-'의 'ㅅ'이 없어졌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기사 아래에는 '기사에 대한 독자 반응'이 있어, 수용자는 기사를 본 자신의 반응을 표시할 수 있고 생산자는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가 기사의 유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한다.

(가)에 언급된 못난이 배의 맛에 대한 정보는 (나)에 사각형 안의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배의 이미지가 담긴 그림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그림에 못난이 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나)에는 '○○ 온라인 알뜰 장터'가 입력된 인터넷 검색창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온라인 판매처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④ (나)에는 농민 최□□ 씨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말풍선 안의 문구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소비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⑤ (가)에 제시된 못난이 배의 뜻은 (나)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수용자에게 못난이 배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한 것이다.

42. [출제의도] 매체에 사용된 표현을 이해한다.

격 조사 '에서'는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낸다. ㉠에 사용된 '에서'는 격 조사로, 배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주체가 ○○ 군청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여 실험실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를 보여 주며, 실험을 할 때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활용하며 안전사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실험실에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실험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실제 사례의 영상과 실험실에서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폭발 사고의 실제 사례를 다룬 영상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며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의 76%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부주의에서 발생한 것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연구원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보여 주며, 화학 물질은 아주 적은 양이라도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실험할 때의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수용자의 태도에 대해 이해한다.

'성우'는 연구원이 학교 실험실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시한 자료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작성된 것인지 궁금해하며 자료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오답풀이] ① '정민'은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자신에게 유용한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소희'는 연구원의 답변을 듣고 알코올램프를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연구원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실험할 때의 유의 사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한지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성우'는 연구원이 언급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학생을 위주로 한 예방 대책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는 상위 항목인 '화학 물질을 다룰 때는 주의하세요.'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슬라이드 4'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슬라이드 2'로 이동해야겠다는 수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슬라이드 2～4의 제목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에 적합하게 ⓐ를 '안전한 실험을 위한 세 가지 수칙'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는 실험 도구의 이미지이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이므로 내용에 어울리는 이미지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